

민관 손잡고 해양기술 혁신 이끈다 '자율운항선박' 글로벌 시장 도전

산업부, 'SHIFT-Auto'호 출항식
삼성중, 설계 등 자율운항 기술 적용
규제샌드박스 통해 자율운항 검증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조선업계 자율운항 실증선박이 잇따라 출항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경남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쉬프트-오토(SHIFT-Auto)호' 출항식이 열렸다.

이번에 출항하는 쉬프트-오토호는 설계부터 자동 접·이안, 음성 제어, 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을 적용한 전장 12m 규모 선박으로,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025년1월3일)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다 있다.

이를 통해 쉬프트-오토호는 타 선박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1일 거제에서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 호'

앞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이달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

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날 출항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표준화·인증으로 우주산업 경쟁력 높인다

국표원·방사청·우주청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개최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21일 대전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MOU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소, 협회 및 학계, 우주관련 산업체 등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체계를 구축해 우리 우주산업의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향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 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 구성해 운영키로 하고, 우주산업 용어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및 제품보증 절차 표준 등을 우선 시급히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주도하고 산학연 전문가들로 표준화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시급한 표준들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37개 사업장 차별 적발... 2억 규모 시정명령

98개 사업장 차별근절 기획 감독

A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이같은 차별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총 2억여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우선,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100만원 가량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

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아울러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산 과일·신품종, 직접 만나보세요"

농식품부,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함께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21~23일 사흘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행사다. 국산 과일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유통 환경 변화를 대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대응 방안의 기회를 갖는 과수 분야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향긋한 과일에 이끌림, 건강한 일상을 반올림'을 표어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뿌듯함을 담아 준비한 다채로운 체험·전시·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주제 전시, 홍보·판매, 체험 등이 운영된다. 주제 전시관은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을

전시하는 대표과일관, 주요 7대 과종의 기능성 및 효능을 소개하는 과일 기능성관, 국내 육성 신품종을 소개·홍보하는 신품종관으로 구성된다.

홍보·판매관에서는 시식 코너를 통해 지역별 대표 과일과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신품종, 대표과일 수상작 등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과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 행사 기간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풍성한 과일장터도 운영된다.

체험관에서는 과일 타르트 만들기, 과일 낚시와 스탬프투어 등 일반 소비자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1일 개막식에서는 2024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자 시상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과일·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과일의 외관, 당도, 산도, 경도 등을 심사해 11종류 과일의 분야별 대표 과일을 선정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올해 가루쌀 신제품 우수업체 선정

최우수상에 그린하우스 등 3곳 시상

'올해의 가루쌀 신제품' 수상 업체들이 가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 푸드위크 행사장에서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사업 우수업체 시상식'을 개최해 최우수상 3곳과 금상, 은상, 동상 업체를 선정·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에는 전국 30개 제과업체가 참가했다. 지난 5월 가루쌀 신메뉴 품평회를 통해 120여 종의 신메뉴를 개발하고, 6월부터 신메뉴를 포함한 500여 종의 가루쌀 베이커리를 판매하고 있다.

aT와 대한제과회회는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6~10월 기간 가루쌀 빵지순례 기간 중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가루쌀 소비촉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 중 최우수상 3개 업체를 비롯해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해 시상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그린하우스(경남 창원) ▲독일베이커리(충남 당진) ▲그라츠 과자점(서울 중구) 3곳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푸드위크 행사장에서 열린 가루쌀 제품 전시회. /뉴시스

선정됐다. 이들 3곳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지원금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남 창원의 그린하우스는 전체 매장 5곳에 복분자쌀롤, 썬쌀빵, 무가당쌀빵 등 가루쌀을 활용한 건강한 쌀빵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판매했다.

충남 당진의 독일베이커리는 매장에서 유명메뉴인 파베기를 국산 가루쌀로 전량 대체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 확산에 방역미흡 농가, 강력제재 예정

농식품부, 위반 시 살처분 보상 축소

방역당국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일부 가금농장에서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그 외 농가 100여 곳에서 확인된 미흡사항도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전염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AI 관련 상황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동절기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새가 국내 본격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AI가 발생한 2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방사사육 금지 위반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이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